

Q&A

레드리본에이즈상담실

Q 손톱깎이를 함께 사용했을 때...

중국 출장 중 직원 손톱깎이를 사용해서 손톱을 깎았는데, 특별히 뭐기 물어있거나 하지는 않았고, 깎는 도중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네요.

A 혈액이 묻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손톱깎기로 감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즉 동료 직원이 HIV 감염인이어야 하며, 손톱깎이에 육안으로 보이는 혈액이 붙어 있어야 하고, 님의 손에 피가 흐르는 상처가 있어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용하신 손톱깎이에 혈액이 묻어있지 않았다면 에이즈바이러스(HIV)가 존재하지 않기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손톱깎이는 사용 중 상처를 입어 출혈이 생길 수 있기에 위생상 개인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검사 시에 소독은 확실한가요?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음주에 12주라 검사받을 생각인데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일회용 침 혹은 소독 기구를 사용하는지요? 우문이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감염의 위험은 없는지요?

제가 워낙에 예민해서 이런 우문을 드리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필요한 침과 알콜솜, 위생장갑, 검사키트는 모두 1회용으로 한번 사용한 것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검사실 환경을 항상 검사에 필요한 일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고, 검사대를 소독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사를 받는 중에 감염될 확률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협회에서 실시하는 무료·익명검사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전에 1588 5448로 예약상담을 하신 후 방문을 하시면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서울검진상담소, 광주검진상담소, 대구검진상담소, 창원검진상담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제가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요. 간호사가 깜박 잊고 알콜 솜으로 소독을 하지 않고 피를 뿜더라구요.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당황하며 미안하다고 하였고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요. 알콜 솜으로 소독 안하고 피를 뿜는 경우도 감염 경로일 수 있을까요? 세 피부는 아침이라 청결한 상태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A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바이러스인 에이즈바이러스(HIV)는 HIV 감염인에게만 존재하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체액에는 혈액과 정액, 질분비물, 모유가 있습니다. 설대 채취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감염 가능한 체액이 아물지 않은 상처나 점막조직에 닿았을 경우에 감염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사를 놓거나 채혈을 하기 전 알콜 솜으로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는 에이즈 감염을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Q 칫솔이나 치간 칫솔로의 감염 가능성

공중복욕탕에 있는 다른 사람이 쓴 칫솔을 다시 쓰게 되면 감염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치간 칫솔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사서 써봤는데 잇몸을 건드려서인지 피가 많아 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간 치간 칫솔에 만약에 인가인 (편집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지닌 사람, 즉 에이즈 감염인을 뜻함)의 혈액 등의 물질이 닿았다면 감염 가능성이 있나요?

A 감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칫솔공동 사용으로 인해 감염이 되려면 사용하신 칫솔에 감염의 체액(혈액, 정액, 질분비액, 모유)이 다량으로 묻어있어야 하며, 공기 중 노출시간도 짧고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혈액이 묻어 있는 칫솔을 씻지 않은 상태로 다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타인이 쓰던 칫솔을 쓰는 것은 기급적 피해아할 일 입니다만, 비록 HIV 감염인이 사용했던 칫솔이라 하더라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낸 후 사용했다면 바이러스가 희석, 사멸되므로 감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수돗물 속에도 약간의 소독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님은 새로 구입한 치간 칫솔을 사용했으니 HIV 감염인의 혈액이 존재할 수 없겠지요. 새 치간 칫솔을 사용하다 내 잇몸에 상처가 생기는 걸로 에이즈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감염인의 체액이 매개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수나 포옹, 가벼운 입맞춤, 함께 식사하기, 학침심이나 욕실 함께 사용하기, 공동빨래, 컵이나 식기 함께 사용하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감염되지 않습니다.

Q 미용사의 손에서 피가 나고 갔었습니다.

14개월 된 아들 머리를 너무진 만남 짧게 자르기 위해 미용실에 갔어요. 세 여동생이 아이를 안고 미용실 아주머니가 아이 머리를 기위로 자르다 아이가 몸부림을 질때 기위에 왼손(검지 손가락 위에서 세 번째 마디 뒷부분)을 뺐거든요. 저는 못 봤는데 여동생이 아주머니 피가 난다는 말에 아이도 울고 해서 제가 얼른 "쉬었나하지요" 했는데 아주머니가 손만 씻고 오시더니 한 1분 쉬었나?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머리를 만지셨는데 사혈이 안 된 상태에서 손가락을 쓰니깐 자꾸 피가 나오는거예요. 제가 포비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돼서 인시 자꾸 신경이 쓰이는거예요.

아이는 자꾸 우니까 빨리 끝나야할 거 같고 그래서 사꾸 괜찮다 괜찮다 생각하구 마무리를 썼는데 아이가 빗을 달라고 하니 그 아주머니가 주더라고요 빗은 당연히 왼손에 들고계사구 아이가 받으면서 손가락에 피가 조금 묻은거예요. 그래서 얼른 붓비슈 찾아와서 손가락은 닦아줬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아이 목욕을 시키고 보니 귀에 상처가 있는거예요. 동생이 그러는데 미용하는 중에 바리깡에 살짝 스쳐서 상처가 난걸 봤다는거예요. 근데 제가 포비아라는 걸 동생이 아니깐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싶어서 얘기를 안했다는거예요. 상처가 깊지는 않아요. 그래도 사꾸 신경이 쓰여서요.

그분이 민망해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혈한 후에 하자고 얘기 안했던 게 넘 후회돼요. 아니 세가 그걸 말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지혈을 한 상태에서 미용을 해야 하는거 아니가요? 괜찮을까요?

상담글을 보니 혈액으로 감염되는 경우는 수혈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혈액 접촉은 감염확률이 제로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만약 미용사가 HIV 감염인이거나 손가락 상처에서 나온 혈액이 아이의 상처에 닿는 것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성관계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0.1~1%)보다는 낮습니다. 감염인의 혈액이 상처에 닿아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염인이었다면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혈하지 않은 상대로 머리를 깎는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HIV 감염인들은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스스로 조심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심각한 상황에서도 피가 흐르는 손가락으로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 일은 삼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는 행동 때문에 충분히 기분이 상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에게 상처가 생겼으니 당황스럽고 놀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농생분도님께서 과거 에이즈에 대해 크게 걱정했던 것을 알고 있기에 언니가 그로 인하여 다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하지 않은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염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HIV 감염인의 수가 적고 더군다나 여성 HIV 감염인은 남성 HIV 감염인에 비해 많지 않기에 일반생활에서 여성 HIV 감염인과 접촉이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다지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감염되었을 것을 걱정하신다면, 결국 에이즈 검사를 받아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님께서도 포비아 경험이 있으신 바, 어린 자녀분의 감염 여부를 걱정하며 검사가 가능한 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장기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 혐회 상담실로 직접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감염인상담 *

Q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요.

제가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는데, 4대 보험 가입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건강보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의료보험 1종이 되어서 필요가 없을 뿐더러, 감염이었는데 밝혀질까 심어서 걱정이 되네요 ^^

아는 사람 말로는 의료보험을 조회해보고 1종이면 건강보험 가입자제를 여차피 못하긴 한대는데 무제는 그 의료보험 조회할 때 혹시나 나올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요. 물론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어떤 사유로든 나올 수도 있겠대. 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직장 4대보험이나 지역건강보험의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사의 경우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호·송은 자연 소멸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중요사항 중 4대 보험 가입 시 노출문제에 관하여는 의료보호나 건강보험의 관리체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직장보험은 관할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의료보호는 보건복지가족부 관할의 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전혀 다른 관리체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출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전 의료보호 1종 수혜자였다는 사항도 알아볼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시고 직장에 입사하시어 힘찬 삶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시 노출문제는 본인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잘 해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 중 어떤 장소에서 그 어떤 이에게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의심하게 되고 궁금해 하게 되므로 그 짐에 대해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행동하시고 부위기를 잘 맞추어 나가면 외부, 타인노출은 없는 것입니다.

투약하는 문제로 직장생활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아직 대안적인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한된 조건에서 남들 눈을 의식하며 약을 드셔야 하는 점을 수치의와 상의하면, 투약 회수를 아침/저녁 2회로 조절할 수도 있으며 병원 진료시간이나 날짜도 연가나 휴가를 이용하여 표시나지 않게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직장 생활, 무리 없이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Q 감염 전 건강 또는 화재보험 가입했을 경우...

약관상 성접촉으로 인한 질병은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통상적인 답변이고, 검색해본 경우 화재보험 쪽으로는 안 되고 생명보험 쪽으로 된다고 하는데, 맞는 애긴지?

또한, 병원 진단서에 감염 사항을 기록하는 게 법적인 의무인가? 과연 감염 전 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해지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A 사보험의 경우...

사보험의 보상의 경우는 감염사실을 일기 전에 가입했다면 대부분이 보험사들에게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드물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회사 전체의 면책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책질병 여부를 약관을 통하여 또는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면책으로 채택하고 있다면 보험을 해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에이즈 확진 전에 가입한 보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거부 사유는 에이즈가 성병 혹은 전염병이므로 면책질병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에이즈는 의학적 분류에 의하면 성병에 속하기보다는 감염성 질환에 속한다는 것과 보험가입 시 일반적인 면책 전염병은 1군과 2군으로 만성에 가까운 3군은 면책질병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보상을 재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합의 보상을 위해서는 진단서가 요구되는데 이 경우 진단명란에 다 질병명과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명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보상사유가 되는 직접적인 사유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아니더라도 면역이 지해되었나는 것은 질병의 완치가 지연되는 등 질병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여 보상이 어렵거나 부분적인 보상만을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감염내과의 담당의사에게 보상사유를 발생시킨 질병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관련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진단서에 첨부해 주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